

## 당귀(*Angelica gigas*)와 감초(*Glycyrrhiza uralensis*)의 열 추출액이 장내 세균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

강국희<sup>1</sup>, 김정민, 정재록<sup>2</sup>

<sup>1</sup>성균관 대학교 낙농학과, <sup>2</sup>공주대학교 축산학과

최근에 건강을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내균총과 건강과의 관련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한약재 중 당귀와 감초에 함유되어 있는 당이 장내 미생물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*Bifidobacterium longum*, *Bifidobacterium adolescentis*, *Clostridium butyricum*, *Escherichia coli*, *Eubacterium limosum*을 glucose 0.5%, 당귀 (*Angelica acutiloba*) 또는 감초(*Glycyrrhiza uralensis*)의 열 추출액 0.5%를 각각 첨가한 변형된 PYF 배지에 37°C에서 48시간동안 혐기적으로 배양하면서 성장도를 6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. 대조구로서 같은 종류의 장내 세균들은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변형된 PYF 배지에서 37°C에서 48시간동안 배양하면서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였다. 당귀의 열추출액은 Control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장내 미생물들의 성장에 당원으로서 효과가 있었으나 glucose를 첨가했을 때보다는 생육효과가 낮았다. 감초의 열 추출액의 경우 *Bifidobacterium longum*, *Bifidobacterium adolescentis*, *Clostridium butyricum*의 성장을 Control에 비교하여 약간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*Eubacterium limosum*의 성장은 뚜렷하게 억제하였다. 이 결과로서 감초에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균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.